



한여름, 하늘과 물을 동시에... 수상항공기 열전

바야흐로 여름, 뜨거운 햇빛에 시원한 곳이 질로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한여름만 되면 으레 생각나는 곳이 있다면 강과 바다. 더위를 식혀주는 데 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에 하늘을 나는 짜릿함까지 보탠다면? 당연히 금상첨화. 그리고 이 금상첨화가 바로 수상항공기다.

휴양지 및 도심지 교통수단으로 각광

수상항공기는 말 그대로 육상 활주로 없이 수상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기. 불과 하늘을 아우르는 만큼 과거부터 교통수단은 물론 관광 및 레저 수단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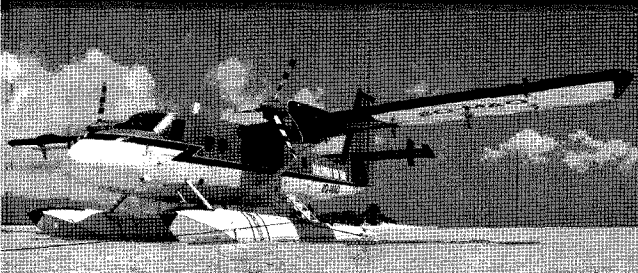
오늘날 수상항공기는 크게 휴양지와 강, 호수, 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다. 예컨대 고급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 영국 글래스고의 낭만적인 하천에서부터 물 섬 토버모

리에 이르기까지 물과 가까운 스코틀랜드 서부지역에서 수상항공기가 활발히 운용 중이다. 이 중 대표적인 항공사가 로크로몬드 수상항공기(Loch Lomond Seaplanes). 이 회사는 9인승인 세스나 208 캐러밴을 이용해 글래스고 시내와 다른 섬 및 해안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승객들이 이 지역의 장관으로 알려진 멋진 성곽과 코리브레칸 소용돌이 현상을 공중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비행경로와 고도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즉 운송서비스는 기본이고, 재미와 낭만도 덩어리 선사한다. 영국 외에도 캐나다 밴쿠버와 인접 빅토리아섬 주변 조지아 헤협 내에도 수상항공기 운용 사업이 성업 중이다. 특히 빅토리아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육로로 약 30분 거리에 있어 추가 접근시간이 소요되지만, 수상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시내 중심부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주요 수상항공기

지금까지 많은 수상항공기가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가장 널리 운용되고 있는 기종은 세스나 208, 트윈오토, 세스나 172 등이다. 특히 이들 항공기들은 비단 수상항공기 외에도 일반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기종들이다.

DHC-6 트윈 오토



DHC-6 트윈오토(Twin Otter)는 드 히블랜드 캐나다가 2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종이다. 특히 기체 형상이 아름답고, 신뢰성이 높아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항공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항공기로 불리고 있다.

세스나 208



카고마스터로 잘 알려진 세스나 208 카리반(Caravan)은 단일 터보프롭 엔진이 탑재된 항공기. 통상 9인승으로 운용하지만, 최대 14인승으로 좌석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재 단체 여행객들을 위한 레저용으로 주로 운용되며, 지선 운항이나 화물기로도 운용된다.

세스나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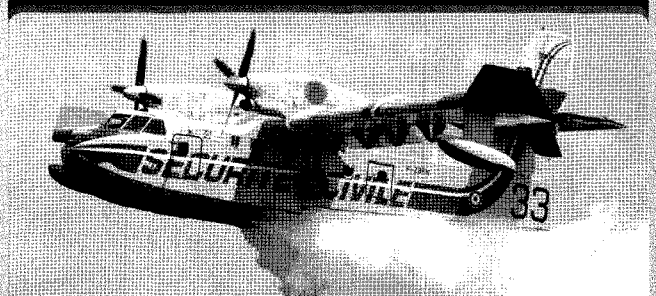
세스나 172는 세스나의 대표적인 경비행기로 흔히 일반 착륙장치가 장착된 모습이 많이 소개됐지만, 사실 수상용으로도 상당수가 운용되고 있다. 조종이 쉽고, 탁 트인 전후방 시계 덕분에 비행훈련용이나 관광용 항공기로 인기가 높다.

시윈드 300C



시윈드(Seawind) 300C는 공기역학적인 설계 덕분에 크기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 엔진이 수직꼬리날개에 장착돼 외형적으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날개 끝이 아래로 꺾여 있어 주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 것을 막아 준다. 현재 수송용보다는 레저용으로 많이 보급됐다.

볼바디어 CL415



비행정인 볼바디어 CL415는 당초 폭격기로 개발된 기종으로 통상 캐나다어(Canadair) CL-415로 불리기도 한다. 최종형은 화재 진압용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본 모델은 CL-215에 기초를 두고 설계됐다. 커다란 수직꼬리날개와 돌출된 윙렛 등이 외형상 특징이며, 현재 상당수가 산악지형이 험준한 캐나다와 미국에서 판매됐다.

우리나라도 수상항공기 시대 개막

신속한 교통수단으로서, 낭만과 재미를 만끽하는 레저용으로서, 수상항공기의 가치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검증된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섬이나 강변 등 교통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제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해 수상비행장 규격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국내 수상항공기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이 시행됨으로써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돼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수상항공기의 운용이 활성화된다면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레저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6